

국민 행복할 방법 함께 찾자

김희중 대주교 선운사 예방, 주지 법만 스님에게 봉축메세지 전달



가톨릭 김희중 대주교(사진 오른쪽)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선운사를 예방해 대웅전에서 참배를 올리고 있다. 왼쪽은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가톨릭 김희중 대주교(천주교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 대화위원장)가 5월 2일 고창 선운사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김희중 대주교는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에서 발표한 '불자들에게 보내는 경축메시지'를 주지 법만 스님에게 전달했다.

법만 스님은 "불교와 가톨릭이 더 마음을 나누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대주교 일행을 환영했다.

이날 김희중 대주교는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 장 루이 토랑 추기경과 사무총장 피에르 루이지 첼라타 대주교 명의의 교황청이 불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희중 주교는 "모든 단계와 모든 처지에 있는 인간 생명의 불가침성,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이웃 사랑과 자연 존중을

배우는 가정의 특별한 사명에 대한 우리의 공동 확신을 재전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주교는 또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이 힘들어 할수록 종교가 화합하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종교평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법만 스님은 "오래전부터 불교와 가톨릭은 소통이 잘 돼 왔다.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종교인들이 자주 만나면서 국민들이 편안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한편, 선운사는 4일 군산교도소 강당에서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과 불자 재소자들을 위한 특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이날은 기자의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석가탄신일 NO, 부처님오신날 YES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btn뉴스에 게재된 '아직도 석가탄신일? 명칭 통일 시급하다'는 기사를 소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btn뉴스는 "1975년 부처님오신날을 석가탄신일 표기로 공휴일 지정 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결과"라며 "1980년대 중반 중단협의회가 정한 부처님오신날 표기가 있어도 이런 혼란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석가탄신일이 부처님오신날로 바뀐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탄신을 기념하는 의미에 더해 모든 이들의 불성을 깨우고 부처가 되자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이에 대해 K씨는 "100% 공감한다. 정식명칭으로 부처님오신날로 통일해야 한다. 잠정적으로 부처님오신날 보다 석가탄신일이라 쓰면 종교적 중립성을 감안한 것으로 여겨진다. 나이가 석탄일이면 거기서 더 낮춰 부르는 명칭처럼 통용되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나 석가는 석가족을 가리키는 말로 석가탄생이라는 말은 그 의미상으로도 뜻이 안통한다. 이점을 근거해서라도 표현을 수정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정작 우리 사부대중이 뽕뽕 뽕뽕 명칭을 써야 하는데 분과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니 통일이 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은 기자

10·27기념관 예산 축소에 공분

조계종 중앙신도회 국방부 비판 성명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가 10·27법난에 소극적이라며 비판했다.

국방부는 최근 '2011년 국방부 예산안'에서 불교계에 약속한 10·27 역사교육관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는 5월 2일 "10·27법난은 신군부(전국 비상계엄하에서)에 의해 처참히 짓밟히고 인권이 유린되는 아비규환을 맞는 등 불교 최대의 불명예 사건"이라고 말했다.

중앙신도회는 "가해자인 국방부가 10·27 역사교육관 예산을 대폭 축소한 사실은 신의를 저버리는 일로 2000만불자들의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조동제 기자

조계종, 신계사 방북 구호 물품 지원

어린이 구호제 10만 정 전달 신계사 훼손 상태 점검도

조계종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북측에 의료 물품을 지원하고 신계사를 참배했다.

조계종 사회부장 혜경 스님과 민족공동체추진본부 관계자 등은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5월 4일 북한을 방문했다. 북측에서는 리규룡 조선불교도연맹 서기장 등 15명이 조계종 방문단을 환영했다.

조계종 방문단은 신계사 참배 후 경내를 둘러보던 중 전각 지붕이 심하게 훼손된 것을 발견했다. 지난 겨울 금강산에 폭설이 내리면서 대웅전 등 경내 전각의 기와가 흘러내린 것이다. 신계사 도감 제정 스님도 빠른 시일 내 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선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조계종은 훼손된 상태를 점검한 뒤 정부에 문화재 보수를 위한 지원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기범 기자



'모두 우리 아이입니다' 국제구호단체 JTS(이사장 법륜)는 5월 5일 명동에서 세계 빈곤퇴치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모두 우리 아이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열린 행사에는 정도희 방송문화예술인 수행단체 '길벗' 회원인 연기자 한지민(사진 가운데), 서효림, 윤소이, 윤동환, 이시연, 이지선(미스코리아) 등이 함께했다. 1시간 여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644만 6060원과 43미국달러, 10캐나다달러, 32위안이 모금됐다. 이상연 기자

낙단보 제2마애불 발굴조사 착수

불교문화재연구원 참여...매장 가능성 높은 암반 주변 수작업



조계종(총무원장 자승)과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이 5월 3일 낙단보 마애불 앞

에서 개도제를 열고 제2마애불에 대한 발굴조사에 착수했다.

양 측은 그동안 제2 마애불 발굴을 놓고 수차례 회의를 갖고 발굴방법과 조사 시기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왔다.

이에 따라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제2 마애불 매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지방도 912호를 폐쇄하지 않고 발굴 작업을 진행한다. 도로 폐쇄시 발생할 주민 불편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발굴 작업은 22일까지 계속된다.

박기범 기자

한국인과의 상생효과 기대

김포마하이주민지원센터, 양촌신협·신한은행 등과 협약

김포마하이주민지원센터(대표 지관)와 양촌신용협동조합(이사장 이건철)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노동자들의 금

융 서비스를 지원한다. 김포마하이주민지원센터의 금융서비스 지원으로 김포 지역 외국인노동자들은 4월부터 매주 2·4주 일요일 양촌신협을 방문해 체크카드 발급, 예·적금 개설 등이 가능하다.

박기범 기자

박구원 만평



"불기 2555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대승보살의 서원과 실천으로"



한국의 청정 전통 선맥을 계승합니다.

선의 현대적 계승을 통해 21세기 정신문명을 선도합니다.

재단법인 선학원 임원 일동

☉ 재단법인 선학원